

존재하는 데서 존재의 힘을 받으며 존재하는 것이다

본 문 마태복음 16장 13-20절

요한복음 4장 23-26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일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새벽부터 일어나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그 은혜로 더욱 주님의 일을 하며 잘하려고 하는데, 요즘 너무 많은 일로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새벽기도도 제대로 못 하게 되었다고 걱정하면서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데서 힘을 받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영상1 끝>

사람이 존재하는 데서 힘을
받으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새벽에 새벽기도를 하고 새벽예배를 드리는 데 존재하려면 새벽기도를 하고 새벽예배를 드리는 데서 힘을 받아 거기에 정을 붙이고 재미를 붙여야 거기서 힘을 받고 기쁨을 얻으며 그로 인하여 새벽기도와 새벽예배 시간을 존재시킨다는 말입니다.

선생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들지만 새벽기도를 하면서 그 시간을 존재시키고 힘을 받고 더 깊이 기도했습니다. 고로 더 차원을 높여 힘을 받고, 주님께 잠언 말씀도 받고, 주님과 만나고 사랑했습니다. 새벽기도를 하면서 내가 더 기분을 내어 새벽기도에 취미를 붙이고 정을 붙이고 좋아하면서 힘을 받고 재미를 봐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이같이 멘토링을 해 주셔서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코치에 의해 답을 받으니 정말 힘이 솟았습니다. 이 말씀은 온 인류와 온 섬리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전능자 예수님의 최첨단의 멘토링이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말씀보다 더 깊이 차원을 높여서 말씀할 것입니다. 모두 주님의 멘토링을 듣고 자기 인생과 자기 사랑을 잘 존재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리사 모든 사람들이 선생과 일체 되어 진리와 사랑의 존재를 하려면, 주님이 선생을 통해 주시는 시대 말씀을 잘 듣고 믿고 행하면서 서로 교통하고 사랑하고 의논하고 섬겨 주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먹고 즐기고 힘을 받고, 또 정을 붙여야 그로부터 얻는 힘을 가지고 섬리사 안에서 신앙을 존재시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깨닫겠습니까? 자기가 존재하는 데서 힘을 못 얻는 자는 섬리사를 따라오다가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딴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글로 써서 모두에게 선물로 줄 테니, 보이는 곳에 붙여 놓고 말씀을 매일 깊이 읽고 행하기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서로 좋아 불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타 죽겠다고 하면서 소방차까지 부르며 뜨거운 사랑의 불 좀 꺼 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같이 뜨겁고 웅장한 사랑의 힘을 받으며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서로 힘이 없이 같이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살다가는 서로 죽겠다고 하며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서로에게서 오는 사랑의 힘도 못 받고 서로 힘 빠지는 일만 했습니다.

이는 존재하는 데서 존재의 힘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기본으로 하여 방법을 달리하여 더 차원 높여 색다르게 더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처음 만난 사람처럼 좋아하고, 사고와 생각을 처음같이 하고, 서로 위해 주고 믿어 주고 희생해야 존재의 힘을 받는데 그같이 못 하니까 사랑해도 존재를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오래되니 권태가 온 것입니다. 자꾸 새롭게 해야 희망이 새롭게 솟아 새 힘을 받게 됩니다.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오면서 새 힘을 받듯이, 사랑하는 자와도 자꾸 새롭게 해야 더 힘 있게 존재하도록 새 힘이 옵니다. 제자리 삶은 오히려 힘이 빠집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선생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불이 붙어 뜨거워 죽겠다며 소방차를 불러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날을 모두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마음도 다 주고 눈이라도 빼줄 듯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자들이 신앙과 열정과 사랑이 식어서 신앙의 늪은이들이 되어 이제는 불을 지피는 사람이 불을 붙여야 살겠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래되니 신앙의 권태가 온 것입니다.

인생은 늪어도 신앙과 열정과 사랑은 늪으면 안 됩니다. 기도와 열심과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늪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행해지지 않습니다. 고로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존재할 곳에서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차원은 높아집니다. 이 흐름에 따라 역사를 따르는 자들도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홍안 소년 소녀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도 더 노력하여 지난날보다 불을 붙여야 됩니다. 더 노련하게 행해야 됩니다.

사람이 늙으면 힘은 없어도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지식의 바탕으로 삼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늙을수록 신앙의 전망증과 신앙의 치매에 걸려 게을러지고 미련하게 행하면, 신앙의 힘이 없이 좋은 휴거의 때에 휴거의 존재를 못 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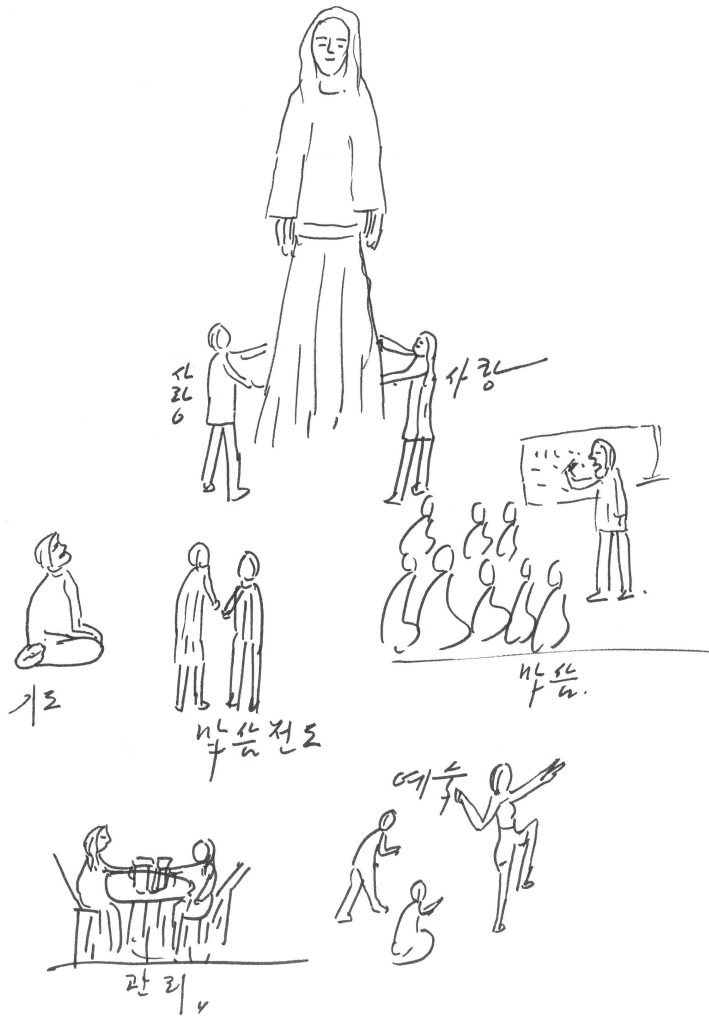
지금 말하는 대상은 나이 든 60대 이상의 어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30~60대까지의 젊은 어른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데서 존재하는 힘을 못 얻으면 거기서 존재하지 못합니다. 각 부서에서 각 사명과 개성대로 일하면서 거기서 충성되게 행함으로 스스로 힘을 얻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도 받고, 선생이 주는 힘도 받아야 정이 들고 희망에 불타고 기뻐서 힘을 받고 존재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교역자들도 존재하는 곳, 곧 목회지에서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그 힘으로 성공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고로 깊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전도하고, 강의하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새 역사로 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사랑하며 구원받고 사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각자 할 일을 하며 힘을 받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며 힘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힘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으며 존재하는 데에 재미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존재하는 데서 힘을 받고 좋아서 신앙을 존재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고, 그 말씀을 행하고 기도하고 각자 할 일을 하면서 힘을 못 받으니 존재하는 데서 힘을 못 받아 신앙을 존재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로 최고의 인생 목적과 가장 이상적인 영원한 축복의 신앙생활을 못 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2> 초안과 기타 영상으로 세세하게 제작 / 설교 내용 자막

존재를 잘하게 하려면, 상대방부터 오는 힘을 받도록 설교를 잘해 줘야 됩니다. 관리를 잘해 줘야 됩니다. 기도를 해 줘야 됩니다.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각자 개성대로 사명을 주어 뛰게 해 주어 그로부터 힘을 받게 해 줘야 됩니다. 형제를 심정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본인도 상대방에게만 바라지 말고 존재의 힘을 받기 위해 자기가 말씀을 생명시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주님을 세상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힘을 받고, 주님과 교통하고, 관리하고 전도하고 생명들을 키우면서 정을 붙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며 희망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같이 해야만 주님을 믿으면서 존재하는 데서 힘을 받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존재하려면 존재하는 데서 힘을 받아야 성공적으로 존재하니, 열심히 노력하고 행하고 주님과 사랑도 충만하고 희망도 충만하라고 한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주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으로 힘을 받을까요? ‘시대 말씀’을 들어야 가장 큰 힘을 받습니다. 신앙인은 ‘말씀’을 통해 가장 큰 힘을 받습니다. 말씀보다 더 큰 힘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마치 우주선 엔진같이 힘 있고, 비행기 엔진같이 힘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 최고로 사랑하면 ‘전능한 힘’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변하지 않고 주 뜻대로 행하면 영원히 힘을 받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감을 받게 됩니다.



옛 시대 말씀으로는 힘을 못 받습니다. 특히 기성 말씀은 이치에 안 맞아 들으면 오히려 힘이 빠지게 합니다. 그들은 개가 들어도 고개를 절

레절레 혼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구시대에서 예수님을 사랑해도 힘을 못 받습니다. 이는 주님이 구시대에는 자녀 입장, 형제 입장의 사랑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약시대부터는 주님이 신랑으로 오셨으니, 신부로서 애인으로서의 사랑이 허락되어 주님을 사랑하면 엄청난 힘을 받게 됩니다.

이 시대 최고의 힘을 받는 성약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2000년이나 기다렸던 ‘육 휴거, 영 휴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시대 땅의 사명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며 주님을 절대 100% 사랑해야 ‘휴거’ 됩니다.

<영상3> 초안과 기타 영상으로 세세하게 제작 / 설교 내용 자막

이 말씀을 쓰는 날 새벽에 주님이 ‘휴거’에 대해 아주 간단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육적 휴거는 너희 육신이 나 예수와 결혼하는 것이고, 영적 휴거는 너희 영이 나 예수와 결혼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영상4 끝>



모두 깨달았습니까? 아주 간단하지요? 교역자들과 강사들은 말씀을 가르칠 때, 그동안 배운 육 휴거, 영 휴거의 말씀을 전해 주면서 이 말씀을 풀어 주며 깨우쳐 주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사망권에 죽어 있습니다. 그 육신도 살아 있으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실 때 사망권에서 죽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도록 기회를 주지만 끝내 안 믿으면, 그 영이 결국 흑암 세계나 지옥으로 갑니다.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그 영이 육신의 행위에 따라 천국으로, 혹은 낙원으로, 혹은 선영계로 갑니다. 주님을 믿고, 안 믿고 사는 것은 이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같이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 보면, 사탄 마귀들 말고 지구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람으로 살다가 끝내 하나님과 주님을 안 믿고 죽어서 지옥에 온 영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안 믿으면 그 영이 지옥에 가고, 믿고 그 뜻대로 행하면 그 영이 천국으로 간다는 하나님의 법이 없었다면 누가 지옥에 가겠습니까?

지옥은 한 번 가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천국도 한 번 가면 영원히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고로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이 시대에 보낸 자의 말을 듣고 주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선생은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고 시대 말씀을 주시어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섭리인들이 선생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대에 주신 말씀 때문에 따르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무조건 믿고 따르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선생에게 말씀을 주시어, 전 세계 각 나라 각 교회 목사들을 통해 외치게 하지 않습니까? 선생을 믿어야 주님이 선생을 통해 하신 말씀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5> 예수님을 안 믿던 자가 진정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았다’ 라고 합니다. 안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안 합니다. 이와 같이 ‘휴거’ 도 그러합니다. 이 시대 말씀을 듣고 구시대 신앙 차원에서 벗어나 주님을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고 신랑으로, 애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그 말씀에 따라 행하면 과거 구시대와 사망권에서 벗어나 새 시대 생명권으로 와서 살게 되는데, 이런 자를 두고 ‘육신이 땅에서 휴거됐다. 부활됐다. 거듭났다.’ 라고 합니다.

<이 시대 육적 휴거>는 이것입니다. 이 시대는 재림시대로 주님이 땅의 사명자를 통해 재림하시어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신약시대 아들급에서 차원을 높인 성약시대 신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모시고 사랑하고 살면, 그 육도 마음도 영도 ‘사랑의 휴거’ 를 받은 것입니다.

지구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천사장이 나팔 불면 예수님이 육으로 재림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 영과 육이 다 변화되어 하늘로 휴거되는 것으로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같이 믿으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육적 휴거 역사’ 를 이루고 계셔도 모릅니다.

육신이 공중으로 휴거되는 일은 지구 세상에서 단 한 명에게도 없습니다. 육은 영의 나라인 하늘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영이 천국에 갑니다. 자기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그 시대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행함으로 그 육도 사망권에서 벗어나 천국의 삶을 살고, 그에 따라 영도 천국의 영으로 변화되어, 주님이 영으로 재림하실 때 그 변화된 영이 주님을 맞아 하늘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신약에서 약속한 뜻을 이루고자 때가 되어 주님이 땅에 오셔서 이미 반세기 전부터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영이시라 땅의 사명자의 육신을 쓰시고 지난 33년 동안 ‘휴거’ 가 무엇인지 외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육신’ 이 세상 누구보다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는 땅에서 ‘육신 휴거’를 이루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적 휴거가 당세의 1차 휴거입니다. 이에 따라 그 ‘영혼’도 육신의 영향을 받고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랑하여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어 자기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천사장이 나팔 불고 주님이 하늘에서 재림하시면, 그 준비된 영이 주님을 맞아 하늘로 휴거되어 천국에 갑니다. 이 영적 휴거가 당세의 2차 휴거입니다.

<영상5> 세세하게 영상 제작 / 설교 내용 자막

선생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육 휴거가 영 휴거 전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낳으려면 남자에게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게 남자가 필요한 만큼 나 예수를 믿고 사는 자들에게 육 휴거가 영 휴거 전에 꼭 필요하다.”

또 물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주님이 보낸 자가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안 믿고 그를 통해 전하는 주님의 말씀도 안 믿어서 시대 말씀을 못 듣거나 불신하여 육적 휴거를 이루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한 인생으로 태어나 결혼하지 못하고 노총각, 노처녀로 늙으면 그대로 끝나고 말듯이, 내가 보낸 자를 맞지 못하여 시대 말씀을 못 듣고 육적 휴거를 이루지 못하면 휴거 못 하는 것으로 끝난다. ‘휴거’는 최종 구원역사이기도 하다.”

또 물었습니다.

“시대 신부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자가 주님의 신부가 된 자로서 육이 휴거된 자입니다. 육이 휴거된 자들은

모두 영이 휴거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땅에서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여 육이 휴거된 자는 재림과 휴거 시대를 알고 깨어나서 ‘육’ 이 나 예수를 맞았으니, 그 ‘영’ 도 나 예수를 맞아 휴거되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향과 조건이 크다. 영이 휴거되면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사니, 가장 완전한 단계에 오른 것이다. 모든 뜻을 이룬 것이다. 고로 육이 더 잘하여 자기 영을 온전히 준비해야 된다. ‘영 단장’ 에는 내가 이 시대에 원하는 ‘사랑과 진리’ 다. 영 휴거는 천국으로 가는 휴거이므로 더욱 온전해야 된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육 휴거는 너희 육이 나 예수와 결혼하여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영 휴거는 육 휴거를 이루며 온전히 준비한 영이 나 예수와 결혼해서 천국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님은 육 휴거와 영 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휴거는 ‘사랑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 입니다. 알겠습니까?

시대 사명자가 아니라 모르니 같은 성경을 읽어도 육적이라 육신이 하늘로 휴거되어 천국에 가는 것으로 믿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육’ 이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영’ 이 휴거되는 것이라고 말해 주면 “나는 육신 휴거로 믿고 다 준비했는데, 그 같은 실망의 말이 어디 있느냐. 내 희망 깨뜨리지 말아라.” 하며 불신합니다.

태양이 도는 것같이 보여도 지구가 돌듯이, 아무리 육이 하늘로 휴거된다고 말해도 육은 하늘로 휴거되지 않습니다. 영만 하늘로 휴거되어 천국에 갑니다. ‘육 휴거’ 의 잘못된 개념으로 인하여 영도 제대로 휴거되지 못합니다. 열차를 비행기로 알고 타면, 열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 사고’ 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영으로 재림하시어

육을 휴거시켜 데리고 가지지 않고 준비된 영들만 데리고 천국으로 가셔도 역사와 말씀과 주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 사고’가 잘못되었기에 못 맞은 것입니다. 주님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다 말씀하셨어도 안 믿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육신 휴거’는 땅에서 사는 육신에게만 해당됩니다. 지난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육신이 죽은 자들은 죽어서 육적 휴거를 못 합니다. 또한 땅에서 육신이 살아 있는 자들 중에서도 모르거나 불신하거나 악평하면 역사를 안 받아들이니 육적 휴거를 못 합니다. 아는 자들만 이 땅에서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이미 육이 죽은 영들은 2000년 동안 영계에서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 재림역사가 시작되어 땅의 사명자를 통해서 성약말씀, 곧 재림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도 영계에서 영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 사랑하며 자기 영을 준비하면, 천사장이 나팔 부는 주님의 재림 때에 그 영이 휴거됩니다.

아무나 휴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 신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 그 육도 이 땅에서 휴거의 삶을 살고, 그 영도 신부로 변화되어 하늘나라의 형체를 입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늘로 휴거됩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고로 육이 세상에서 휴거돼도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마치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사랑해주어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사람들로 부터 오는 억울함과 각종 삶의 고통도 있듯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하는 자가 힘을 주니, 그 힘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같은 시대 말씀을 듣고,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보내신 선생을 믿고 힘을 받아 섭리사에서 끝까지 존재하라고 이같이 힘 받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새 역사로 와서 새 시대 말씀

을 들어야 큰 힘을 받습니다. 구시대 말씀은 주님을 신랑으로 사랑하는 말씀이 없으니, 아무리 들어도 신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 신랑이 될 자의 사랑의 말을 들어야 그 말로 인해 신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성자께서 예수의 육신을 쓰고 오셨을 때 전하신 복음은 지금같이 약속된 휴거의 복음, 재림의 복음, 신부의 복음, 성약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때 전하신 말씀은 ‘형제’로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도 기독교에 있을 때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해도 예수님을 신랑같이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나의 삶이 주님의 신부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6> 선생이 산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처음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말씀을 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나는 홀연히 주님의 신부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같이 본 대로 오셨습니다. 부활 후 영으로 승천하신 그대로 영으로 오셨습니다. 시대 말씀을 선포하시어 우리 육과 영을 주님의 신부로 변화시키고 휴거시키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선생을 10년, 20년 길러 주시고 애인으로 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말한 대로 세상에 나가 시대 말씀을 외쳐라. 내가 재림했다. 내가 너의 육을 휴거시키려고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의 신부가 되고 나의 육이 되어 시대 말씀을 전해 주어라. 나는 육신이 없는 영

이니 너의 육을 나의 육으로 쓰며, 너는 나와 같이 행해야 된다. 내가 너를 통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따르면, 그들도 나의 애인이 되어 육이 휴거되는 삶을 산다. 나는 신랑이 되어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신부 집 지구에서 육으로 하는 혼인 잔치를 끝내면, 나 예수는 신랑 집인 천국에 가서 마지막 준비를 끝내고 곧 예비된 영들을 휴거시키러 온다.” 하셨습니다.

지금은 땅의 육신 휴거 혼인 잔치가 끝나 가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 전 혼인 잔치입니다. 만사에 때가 있기에 아무리 좋은 혼인 잔치도 때를 두고 하니 끝이 있습니다. 이제 천사장이 나팔 불고 주님이 영으로 재림하시어 우리 영을 휴거시키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상6> 산에서 기도 / 예수님의 가르침

땅의 혼인 잔치 끝나고, 모두 자리를 뜨는 모습 (내용 자막)

오늘은 선생이 증거해야 될 말씀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겪게 하신 것들을 말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뚜껑을 덮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영상7> 예수님 출현

<예수님 말씀>

나의 재림 때 섭리사에서 존재하며 신앙의 삶을 살려면, 이 시대 말씀을 들어야 된다. 지금은 이 시대 말씀을 안 들으면 존재하기가 어렵다. 기성은 젊은이들이 이 시대 말씀을 못 들음으로 희망이 없으니 존재하지 못하고 교회를 왔다가 떠나간다. 섭리사에 온 자들 중에서도 이 시대 말씀을 소홀히 대하면 존재하는 데서 힘을 못 받고 나가게 된다. 너희는 이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여 존재의 힘을 받고 끝까지 존재하기를 축복한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8> 돌포도나무에 참포도나무를 접붙여 참포도 열매를 맺듯이, 너희 육신이 시대 말씀을 듣고 내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어 나의 신부가 됨으로 땅에서 육적 휴거를 이루게 된다. 너희 육신이 죽으면 육 휴거는 그것으로 끝난다. 그 육의 조건과 영향을 받고 ‘영’도 시대 말씀을 듣고 사랑의 신부로 변화되는데, 나는 그 영을 천국으로 데려가서 결혼하여 영원히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하며 살게 된다.

<영상8> 돌포도나무에 참포도나무 접붙여 참포도 열린다.

우리 육신이 시대 말씀 듣고 신부의 삶 산다. ‘육적 휴거’

육의 영향 받고 영도 신부로 변화된다.

그 영을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시면

휴거시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영적 휴거’

설교 내용 자막

‘휴거’는 나와 일체 된 사랑의 삶을 말한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찌 나의 나라 천국에 데리고 가겠느냐. 구원도 사랑하니까 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대신 죽어 주며 구원할 수 있겠느냐. 모두 사랑 때문이다. 왜 구원받는지 모르면, 구원받았다가도 사탄이 다시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된다.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을 깨닫고, 너희도 나 예수를 진정 사랑으로 대하기 바란다. 썩어 없어질 값없는 세상 사랑에 자기 사랑을 쓰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너무 많다.

너희는 육도 휴거되고 영도 휴거되는 때에 태어났다. 이미 육이 죽은 자와 시대 말씀을 믿지 않아 성약역사로 오지 않는 자는 육 휴거를 할 수가 없다. 2000년 전 나 예수가 이스라엘에 육신을 쓰고 왔을 때, 나를 믿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한 자들만 신약 생명권으로 구원받고 새 시대로 휴거되었다. 나머지는 시대 휴거를 못 하고 구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의 혜택만 받았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이 시대 말씀을 듣고 새 역사로 와야 성약 생명권으로 구원받고 새 시대로 휴거된다.

너희는 ‘시대 말씀’이 얼마나 중한지 알아라. 새 시대로 와서 시대 말씀을 들어야 구시대 사망권을 벗어나 휴거된다. 시대 문화권의 모든 혜택도 그러하다. 시대 문화권의 혜택을 못 받는 자는 그 시대 원시인이 아니냐. 신앙 세계도 그러하다.

부지런히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여 너희 육신도 나의 신부로 변화되어 휴거되고, 너희 영도 온전히 변화되어 천사장이 나팔 부는 나의 재림 때 너희 영혼도 휴거되어야 한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9> 육 휴거만 되고 영 휴거를 못 하는 자는 연애는 했는데 연애 기간에 바람을 피우든지, 남자가 원하는 만큼 기대를 못 채워서 결혼을 못 하고 마는 격과 같다. ‘연애’는 육적 휴거와 같고, ‘결혼’은 영적 휴거와 같다. 연애하듯 육적 휴거도 하고, 결혼하듯 영적 휴거도 해야 된다.

땅에서 육적 휴거 혼인 잔치를 할 때는 나 예수가 땅의 중심자를 통해 한 세월을 두고 한다. 천국에서 영적 휴거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 너희를 데리러 올 때는 ‘순간’ 데리고 간다. 너희 영은 나 예수의 영이 와서 데리고 간다. 그때는 땅에서 하는 휴거 역사가 아니라서 너희 선생의 육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땅에서 육적 휴거 역사를 펼 때는 너희 선생이 살아 있을 때까지 그를 나의 육으로 쓰며 이 땅의 재림 역사를 펴 나간다.

<영상9> 세세하고 실감 나게 영상 제작 / 설교 내용 자막

너희는 어서 이 시대 나 예수의 말씀을 전하여라. 고로 땅에서 하는 육신 휴거를 많은 자들이 이루게 하여라. 육신 휴거를 한 자와 안 한 자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는 마치 영이 휴거된 것과 안 된 것과 같고, 결혼한 것과 홀로 외롭게 노총각 노처녀로 사는 것과 같다.

나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 보아라. 너희 선생이 나를 신랑으로 모시고 사랑함으로 나의 신부가 되니, 내가 너희 선생에게 해 준 것을 보아라. 나 예수는 전능자이니 오죽이나 잘 알아서 다 해 주지 않았겠느냐. 본인 개인의 것을 다 해 주어 가정의 것과 섭리사의 것과 민족의 것과 세계의 것을 구하니, 내가 사랑하므로 그것도 다 해 주지 않았느냐. 다만 내가 사랑하는 너희 선생이 구했어도 축복을 받아 준 자들이 자기 책임을 해야 합당하여 해 준다.

너희도 내 사랑하는 신부가 되었으니 구하여라. 자기 것도, 형제의 것도, 가정의 것도, 민족의 것도, 시대의 것도 합당하게 구하여라. 나의 역사를 따르며 인생을 살다가 억울함을 받은 것도 모두 구하여라. 나를 사랑하는 조건으로 구하여라.

나의 사랑하는 신부가 되었으면서 왜 내게 구하지 않는지 아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조건이 없어서 못 구하게

된다. 애인에게는 사랑하면서 구해야 미안하지 않아 의식하지 않고 자꾸 구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조건이 없어서 미안하여 구할 것도 못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사랑함으로 나의 신부로서 이 시대의 것뿐 아니라 후대의 것까지 구하여라. 전도를 많이 하도록 구하고, 관리 잘하도록 구하여 올해 목표대로 하기 바란다.

휴거된 새 시대에 사는 자들이 이 시대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다. 너희 선생은 내가 늘 말씀을 주고 사랑해 주니, 지금부터 30년 전에도 혼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담대하게 시대 말씀을 전했다. 나 예수가 애인이니 자부심을 가져라. 나 예수가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역사 하는데 누가 너희를 꺾겠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행하여라.

(*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0>

너희를 반대하고 악평하는 자들을 나 예수가 즉시 멸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도 나의 백성인 고로 사탄에게 유혹되었기에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 생명을 늘 걱정하며 구원하는 구원자 나 예수가 마지막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 예수마저 지금 그들에게 등을 돌린다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고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들에게 당한 억울함을 놓고 기도해도 즉시 그들을 멸하지 않고, 너희 문제만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를 깨닫기 바란다. (영상)

사탄 마귀도 멸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귀같이 악한 자들이 많고 불신자들이 많고 죄를 지은 자들도 많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멸하지 않고 마귀들만 멸하면, 마귀들은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고 말한다. 사탄 마귀를 멸하면 그 선에 있는 악한 사람들도 다 멸해야 된다. 기회를 주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행위대로 다 갚아 준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 의를 행하여 사탄과 악인들을 멸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탄 마귀는 항상 하나님께 누가 하나님의 법을 범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법을 범했는데 왜 그냥 놔두느냐고 공의롭지 않다고 힐문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범한 자들을 자기들이 해롭게 한다고 한다. 온전히 회개할 때까지 사탄은 떠나지 않는다. 고로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해야 된다.



사탄 : “하나님 애는 죄를 짓고
그냥 있으니
내가 괴롭히고
고통을 주겠습니다.”

*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사탄이 끌고 가는 모습 생생하게 표현

왜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지금 당장 멸하지 않으시는지 알았느냐. 그러니 왜 믿는 자들을 해롭게 하게 사탄 마귀를 그냥 놔두느냐고 말하지 말고, 너희가 죄를 짓지 말고 기도하여 사탄을 물리쳐라. 기도하여 나 예수에게 매달리면 내가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기도의 조건으로 멸하기도 한다. 때가 되면 사탄 마귀 전체를 지옥에 가둔다.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도 영계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영처럼 보인다. 세상에서 악한 자라도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면 걸만 보고는 모르듯이,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도 영계에서 보면 하나의 영처럼 보인다는 말이다. 그러니 영계에서나 육계에서나 항상 나를 붙잡아라. 그래도 사탄이 침범 하거나 악한 자들이 해를 주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섭리사에서 존재하는 데 힘을 받기 바란다.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는 주 예수다. 샬롬!

<영상10> 세세하고 실감 나게 영상 제작 / 설교 내용 자막